

# 문화면의 '사건기자'로 선편을 잡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9

김병익 | 문학평론가

“학술이든 문학이든 나는 내가 맡은 바를 대체로 내 자신의 해설기사로 감당했다. 물론 특정의 전문가 기고가 필요할 경우 당연히 외부 필자를 동원했지만 동향과 흐름, 경향과 의미 부여의 일들은 내 자신이 많이 썼다. 그때는 길거나 짧은 기사들,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기사들을 어쩌면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지, 지금 돌이켜봐도 신기하고 즐겁다. 내 주머니 속의 메모들은 언제나 그런 기사로 동원될 차비를 차리고 있었다.”

나의 가난한 재주를 한탄하며 기사 쓰기의 어려운 훈련을 겪는 가운데 나는 본격적인 문화부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10년이 채 안되는 나의 이 이력에 대해서는 좀 자랑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중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문학과 학술, 출판 등 문자를 중심으로 한 분야들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연재 기사 기획을 하며 참 많은 기사들을, 그것도 아주 열심히 썼다.

## 문화면 기사에 새 바람 불러 일으켜

내가 그럴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었다. 내가 문화부로 발령받아 말석에 자리잡을 당시 바로 위 선배기자와는 경력으로 6년차여서 웬만한 기사 거리는 내게 할당됐고 그 시니어급 기자들은 나의 열성과 아이디어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끌어줬다. 더구나 당시의 《동아일보》 문화부에는 후에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게 될, 능력과 지성에서 훌륭한 선배와 동료들이 많았고 그 분위기는 지적이면서 밝고 자유로웠고 그래서 편집국의 어느 부서보다, 다른 어느 신문의 문화부보다 진지하면서도 비옥했다. 이런 속에서 나의 문화부 기자 생활은 즐겁고 활기찼으며 큰 보람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당시 문화부에 배당된 지면은 전체 지면이 늘

면서 더불어 함께 늘기는 했지만 대체로 1주 6면이고 그나마 가정과 과학도 포함된 것이어서 순수 문화는 아주 제한적이었고 그 문화면도 외부 기고가 많았고 커버해야 할 분야도 고착돼 있어 대체로 정태적인 인상이었다. 나는 우선 조금씩 문화면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행사 소개로 멈춘 종교와 서평으로만 채워진 출판이 그것이다. 나는 1966년인가에 현대화, 토착화의 관점에서 기독교, 불교계의 새로운 움직임들을 특집으로 하는 연재 기사를 기획, 보도함으로써 종교도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출판도 새로운 도서 기획이나 출판계의 변화들을 추적함으로써 도서 문화의 동태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브레인 드레인(두뇌유출)’을 집중 취재함으로써 시작된 학술담당 기자활동에서 내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당시 우리 학계와 지식사회에 광범하게 전개된 한국학의 동태를 소개하며 그 의욕을 기사로 지원하는 일이었다.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움직임과 경향, 그들의 저서와 논문, 또 당시 붐을 일으키는 심포지엄들을 통해 그 흐름을 추적하고 방향을 전망하며 그 의미와 성과들을 요약, 해설하고 업적을 발표한

학자들을 조명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전반과 세목을 정리 보도하려고 나는 애썼다. 이로써 우리 학계가 역동적이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이런 움직임들을 저서와 세미나, 토론, 의견들을 취재하고 수렴함으로써 하나의 주제로 진전시키는 나의 기사 작성 방식은 이후의 학술 기사에 모델이 됐지 싶다.

## 신진세대 문인을 필자로 동원해

문학도 학술 보도와 비슷한 방식과 태도로 이뤄졌다. 60년대의 한글세대 부상과 더불어 바뀌기 시작한 문단의 동태와 창작의 새로운 경향들을 추적하고 그 전반을 개괄하며 내가 좋은 문학인들이라고 믿는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성과를 논평, 보고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창작과 비평》이 창간된 후 그것이 취한 새로운 편집체제와 가로쓰기 등의 문화사적 의미, 서기원·최인훈의 연작소설이 갖는 현실 투시적 성과, 최인훈·홍성원이 즐겨 쓴 피카레스크 수법의 문학적 성격 등이 그런 예들의 몇 가지다. 60년대 후반 4·19세대가 본격적으로 문단에 진입해서 이 어령이 지목한 이른바 ‘감수성의 혁명’이 이뤄지는 시절이었기에 ‘월평’ 등의 필자로 동원하거나 새로운 경향의 작가로 빈번하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신진세대의 문학인들이었고 내가 기사를 만들면서 자문을 구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 또래의 비평가들이었다. 1968년 이광수의 《무정》 발표 50주년을 기해서 ‘한국 현대문학 반세기’의 기획특집에 참여한 필자들, 그리고 67년 김봉구 교수의 발표를 보도함으로써 찬반의 글들을 이끌어내 문계의 ‘순수/참여 논쟁’을 일으킨 문학인들의 중심이 바로 이들이었다. 나는 신춘문예의 심사위원들 연배를 조금 아래로 내리기도 했지만, 그 심사가 한두편으로는 미심스러운 시 부문의 응모작 편수를 종래의 ‘3편 이내’에서 ‘3편 이상’으로 반전시킨 것은 그후 모든 신춘문예 요강에 그대로 채택됐다.

학술이든 문학이든 나는 내가 맡은 바를 대체로 내 자신의 해설 기사로 감당했다. 물론 서평이나 월평, 특정의 전문가 기고가 필요할 경우 당연히 외부 필자를 동원했지만 동향과 흐름, 경향과 의미 부여의 일들은 내 자신이 많이 썼다. 나는 책과 잡지에 의존하고 대학 교수와 문필가들의 해석과 의견을 모았다. 문화부 기자란 자신의 기사를 잘 쓰기도 해야 했지만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해줄 인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다. 기자로서 신문 기사 쓰기는 더 확장돼 얼마 후에는 논설위원급들이 맡아오던 잡지 월평을 내가 맡기도 하고 자유로운 비평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의뢰하던 서평도 더러 내가 쓰기도 했다. 그때는 길거나 짧은 기사들,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기사들을 어찌면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지, 지금 돌이켜봐도 신기하고 즐겁다. 내 주머니 속의 메모쪽지들은 언제나 그런 기사로 동원될 차비를 차리고 있었다.

#### 신문 문화면을 논쟁과 비판의 장으로 삼아

이렇듯, 나는 문화부 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참으로 적극적으로 활달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나는 어떤 사건이라도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사건이어서 그 지면에 보도 해설되더라도 그것들은 문화적 각도로 또 달리 새로운 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예 중 하나가 당시 뜨거운 쟁점을 일으켰던 '청년문화논쟁'이었다.

당시 삼선 개헌에서 유신 체제로 옮겨가면서 4월이면 으레 대학가가 어수선해졌는데, 나는 그런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1974년 있었던가 '청년문화론'을 제기해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의로운 향의를 부추겨주려 했다. 그러나 이 기획 특집은 나의 '가룩한' 의도가 오해돼 흥분과 반발이 무성한 비생산적 논쟁으로 그치고 말았다. 통기타, 생맥주, 블루진을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이장희·양희은 등 대중문화인들을 그 문화의 우상으로 든 것이 정작 그것들을 애용하는 대학생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퇴폐문화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산 때문이었다.

유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주로 문학작품을 통한 해설 또는 소개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 연장선이었다. 그 노력은 우회적이고 은유적일 수밖에 없지만 행간에 독자들의 비판과 각성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가령 피카레스크나 연작 수법은 문학적인 것이고 기법적 차원에서 해석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결론은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실상을 투시하며 그래서 우리의 상투적인 사유를 깨트리기를 요구하는 방법적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곧 독재권력의 횡포를 인식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실상을 확인하며 그에 대한 동의와 계몽을 일구려는 나의 의도

가 행간과 배면에 은근히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의 기사는 불온한 면모를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게는 기관원의 검열 수위를 피할 수 있는 테크닉이 발달해 있었던 것 같다. 소문으로는 '남산'이 다른 신문 문화면과는 달리 《동아일보》 문화면만은 주시해보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이 문화면이나 나 자신은 이른바 그 흔한 필화를 한번도 당하지 않았다. 후에 유신시절의 《문학과 지성》과 신군부 시절의 '문학과 지성' 도서들이 기관원의 지목을 받고 경고를 당하면서도 필화나 금서 조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그 테크닉 덕분일 것이다. 김지하의 <오적>을 어떤 형태로든 신문에 소개하고 정희성의 노골적인 저항시를 '목요일단'에 약간의 수정으로 대의를 유지한 채 발표할 수 있었던 짜릿한 희상이 그런 예들이다.

#### 열린 시선과 균형감각 갖추게 돼

나의 《지성과 반지성》(1974)에 대한 서평에서 최정호 선생이 기자로서의 나를 다음과 같이 평한 것은 분명 과찬이지만 나의 문화부 기자 생활의 어떤 성격은 지적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기자로서의 김병익은 한국 신문의 문화면에 새 기원을 그었다. 종래의 우리나라 신문 문화면이 문화인이나 문화 행사 또는 문화인들의 투고의 '사회자' 구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김병익은 문단, 학계를 스스로 '취재'하여 '보도'하고 나섰다. 그는 문화면의 '편집자'가 아니라 문화면의 '사건기자'로서 선편을 친 것이다. 그는 한국 신문의 문화면에 '뉴저널리즘'을 도입하였다고 나는 본다"(<비평의 논리와 지성의 윤리>).

어떻든 나는 문화부 기자로서 문화가 깨어 있고 활력적이며 비판적이기를 바랐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적 억압과 경제 사회의 왜곡과 모순을 극복 지양할 힘이 문화에 있다고 봤고 문화야말로 잘못된 현실과 싸우며 그것을 비판할 유일한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문화부에 근무하면서 문화를 통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고 문화의 힘에서 현실의 대안을 발견하며 삶의 진의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대단한 행운이며 보람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인식이 자유 민주주의적 지향을 품게 되고 세계와 문화의 다양성을 옹호하며 후배들이 흔히 평하는 것처럼 '문화주의'로 그 줏대를 갖추게 된 것, 그리고 남들이 흔히 내게 좋게 말할 때 쓰는 열린 시선과 균형 감각이 실제로 내 안에 도사려 있다면 그 모두는 문화부 기자로서의 생활과 훈련 덕분일 것이다.●